

국립익산박물관, 상설전시실 '임시휴관'

신관 개관 준비 내달 16일부터 내년 1월까지
현 박물관 소장 백제 유물 등 이관 작업 돌입

국립익산박물관은 현재 증축중인 신관(조감도)의 준공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시 및 소장품 이관 등 개관 준비를 위해 현 박물관 상설전시실을 임시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임시휴관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20년 1월까지다. 이 기간 기존 건물에 있던 유물을 증축된 신관으로 이전한다.
이 곳은 1997년 5월 도립 마름사지유물 전시관으로 문을 열었으나 2009년 마름사지 석탑 백제 사리장엄구 출토, 2015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 등 익산·군산지역 출토 국가 귀속 문화재의 국가 차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립마름사지유물전시관으로 전환(2015년 12월) 후 지난 3월 국립익산 박물관으로 정식 개관했다.

마름사지 석탑과 사리장엄구를 핵심가치로 삼아 계층별 수요에 맞는 전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의 대표문화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지난해 4월 증축을 시작해 오는 2020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새로 개관하는 익산박물관은 4개의 전시실(2255㎡)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출토된 약 40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계기별 다양한 특별전을 열어 백제왕도 익산문화권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 가상의 입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미디어매핑과 증강현실(AR) 기술을 도입,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과거의 역사를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신상호 국립익산박물관장은 "이번 임시휴관은 국립익산박물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한 시설과 다양한 유물 전시환경 조성 등, 지역대표 문화기관으로 다가가기 위해 관람객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 마름사지 석탑 일원은 박물관 임시휴관과 관계없이 관람이 가능하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퍼플 섬' 신안 박지도 900년 우물 화제 천사대교 관광객 인기 코스...정월 보름날 풍년기원 설화

'퍼플 섬'으로 유명한 신안 안좌면 박지도에 900년 된 우물(당샘·사진)이 화제다.
천사대교 개통으로 물으로 변한 요즘 안좌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온통 보랏빛으로 채색된 박지도 900년 된 우물이 화제다.
이 우물은 박지도 당산 뒤편 50m쯤에 있다.
1700년대 박지도로 이주한 김성택에 의해 전해오는 설화에는 이주하기 오래 전부터 마을 뒷산에 상당과 하당에서 매년 정월 보름날 마을의 풍년농사, 안전기원, 질병퇴치를 위해 상당(당할머니)에 제를 올렸다고 한다.
제주는 제를 올리기 전 이 우물에서 목욕재계 후 정월 보름날 첫달이 올면 송아지를 당에 제물로 제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예전 당에는 제를 모시는 자리에 팽나무 다섯그루가 있다.
우물을 찾은 관광객들은 샘물을 떠 마시고 팽나무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등 박지도의 인기 관광코스가 됐다고 안좌면은 전했다.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고 한다.
반월·박지도엔 우물 외에도 또 하나의 '중 노돛길' 전설이 있다.
반월·박지도 암자에 비구니담과 비구스님이 서로 연모하면서 양쪽에서 돌을 수년 동안 놓으면서 마침내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느덧 얼굴엔 주름살이 가득했다.
만남도 잠시 밀물이 되면서 바닷물에 휩쓸려 두 스님은 사라지고 썰물 이후 노돛길만 남았다. 그 후 주민들은 그 길을 '중 노돛길'이라고 부르고 있다.
길이는 0.5km다. 지금도 박지도에는 남자담이 있고 반월도에는 여자담이 있다.
주민들은 아직도 전설속의 남녀 스님을 추모하고 있다.
김동우 안좌면장은 "천사대교가 개통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반월·박지도 퍼플교를 찾고 있어 당사에서 제를 재연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중 노돛길은 차량으로 농수산물을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로 보강해 줄 것을 군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현 기자 sslee@

익산시-전북은행, '유라시아 철도 정기적금' 상품 출시 협약 KTX 익산역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 공동 대응

익산시와 전북은행이 KTX 익산역 유라시아 거점(시발)역 선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지난 27일 익산시청에서 전북은행과 '유라시아 철도 정기적금' 상품 출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전북은행은 KTX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 선정에 대해 금융·비금융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시는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역이 국내를 넘

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철도관문이 되는데 향토은행인 전북은행과 함께 개돼 기쁘다"며 "익산역이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선정되는데 익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이 높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KTX 익산역을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중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창립, 대규모의 유라시아 철도정책 세미나, 국제역 유치전략 연구용역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익산시는 지난 27일 익산시청에서 전북은행과 '유라시아 철도 정기적금' 상품 출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 제공

영암군, 올 여름 기찬랜드에 10만명 찾았다

44일간 대장정 마감...2억7000만원 경제수익도
영암군은 국립공원 월출산 맥반석에서 흐르는 천연 자연 풀장인 기찬랜드가 44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개장한 이후 주말에는 1만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는 등 25일 폐장 전날까지 10만명이 찾았다.
국내외 정세 불안과 경제침체, 장마·태풍에도 불구하고 인파로 붐볐으며 2억7000여만원의 수익도 올렸다고 군은 설명했다.
예년보다 올해는 휴가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물놀이 피서객이 많이 찾았다.
기찬랜드를 찾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유입되면서 경제적 파

급효과도 컸다고 군은 분석했다.
올해는 어린이부터 성인용 물놀이장과 실내수영장, 각종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기찬랜드는 가야금산조기념관·조훈현바둑기념관·국민여가캠핑장과 10월 29일 개관하는 한국트러트가요센터로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체류형 기반 시설을 갖췄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월출산 기찬랜드는 전국 물놀이 안전명소 후보지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면서 "올해도 전국의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명품 피서지로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추석 준비는 남원 농·특산물로 하세요"

"추석 준비는 남원 농·특산물로 하세요."
남원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연다.
직거래장터가 개설되는 곳은 서울시 청과 서초구청, 강서구청, 부천시청, 전북도청, 전북혁신도시 지방인재개발원 등 10곳이다.
이번 추석 직거래장터에서는 배, 사과, 포도, 김부각, 추어탕, 한과, 송편, 꿀, 장류, 참기름 등을 선보인다. 이어

29일부터 서울시청 등 전국 주요도시 10곳에 '직거래 장터' 개설 운영
쇼핑몰 온라인 판매도
남원 특산품인 목기와 병풍 같은 제품은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남원시 인터넷 쇼핑몰인 남원사이버장터(www.lovenamwon.co.kr)를 통해 온라인 판매도 병행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2곳에서 추석맞이 농특산물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장터를 계기로 춘향애인 농산물과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추석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고창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버스터미널 4곳과 전통시장, 체육시설 등 25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이다.
점검내용은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손상 균열 및 지반침하 등에 따른 위험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여부, 비상구 확보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상태,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등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마지막, 600평 싸게 정리합니다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